



2010학년도 공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설문] : ‘현대인’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문제 상황 설정		생성한 내용
[가장 많이 나온 답변] ◆ 시끄럽다 ◆ 굼뜨다 ◆ 사납다 ◆ 따라 한다 ◆ 탐욕스럽다	⇒	㉠	→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	→	여유를 가지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	→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온화한 태도가 필요하다.
		무조건 남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	㉤

- ① :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 ② ㉡: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 ③ ㉢: 타인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다.
- ④ ㉣: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요구된다.
- ⑤ ㉤: 바람직한 소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 ‘정보 보호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모은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쓸 기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보 침해의 유형별 경험 (2007년)			
구분	해킹	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비율(%)	15.4	55.9	56.8

㉠

정보 보호 시장의 성장 추이 [단위 : 억 원(국내), 백만 달러(국외)]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세계	32,331	35,686	41,668
국내	6,807	7,052	7,432
세계 시장 점유 비율(%)	2.11	1.98	1.78

㉡ 정보 통신 시설과 서비스 보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정보 침해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2007년 현재 국내 정보 보호 인력은 4,874명으로 디도스 공격과 같은 정보 침해에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은 2007년에는 277억 원, 2008년에는 273억 원으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 보호 예산이 미국의 경우 9.2%인 반면 우리나라는 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① ㉠과 ㉡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②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 ③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제안한다.
- ④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 ⑤ ㉡과 ㉣을 활용하여 정보 보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자연 파괴이다. ㉠ 인간은 식량 생산을 위해 삼림 개간을 확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농경지와 초지를 만들기 위해 삼림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삼림이 훼손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의 생산력은 저하된다. 농경지와 초지는 삼림과 같은 수준의 물 저장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나무나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 황무지로 변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 가뭄이라도 닥치면 황무지는 ㉡ 금세 사막으로 변한다. ㉢ 사막의 오아시스는 그나마 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사막으로 변한 곳은 경작과 목축에 이용할 수 없다. 인간은 다시 삼림에 불을 질러 농경지와 초지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농경지나 초지는 다시 황폐화되고 사막으로 변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아마존의 삼림은 지구의 허파로 불린다. 이런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면 지구의 탄소 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사막화는 한층 가속화된다.

삼림을 개간하여 농경지를 늘리고 초지에 많은 가축을 풀면 당장의 이익은 증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처럼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인간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 ㉤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 ① :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확대한 결과를 들 수 있다’를 ‘확대해 왔다’로 고친다.
- ②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금세’를 ‘금새’로 고친다.
- ③ ㉢: 논지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리고’를 ‘그러면’으로 바꾼다.
- ⑤ ㉤: 속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으로 바꾼다.

4.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例)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조건1]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조건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조건1]	[조건2]
①	과 이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
②	와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랴.
③	랑 저는 어머니랑 많이 닮았대요.	나는 영희랑 철수랑 영수를 우리 집에 초대했다.
④	하고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
⑤	이며 그림이며 조각이며 미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웃이며 신이며 죄다 흩어져 있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큐멘터리’란 1930년대 현실 참여 다큐멘터리의 대가 존 그리어슨이 로버트 플래허티의 「북극의 나누크」를 묘사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다. ‘기록물’, ‘여행록’이라는 어원이 말해주듯 초창기 다큐멘터리는 다른 문화를 기록하는 도구로서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충실한 관찰 기록물’로 관객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식이 극영화의 방식에 비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는 다큐멘터리는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은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 양식에서는 이미지보다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voice over narration)이 정보를 전달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내레이션이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이 양식에서는 이미지가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시각적 증거물이자 보충물에 불과하다.

화면 밖에 존재하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화면에 펼쳐지는 이미지들을 관객에게 설명하고,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석하며, 그것들에 대해 논평을 한다. 이때 내레이터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충실히 관찰하는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전달자의 위치에 있다고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진다. 관객들의 이런 태도는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보증하는 강력한 ㉠ 기제가 된다. 증거 화면까지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신뢰감을 주는 성우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객관적인 설명’을 들으며 관객이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양식의 ㉡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신의 음성’이라 일컫기도 한다.

하지만 촬영 대상을 선택하고 렌즈 종류를 선택하는 등의 행위 하나하나에 이미 제작자의 주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제작자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객관성, 사실성에 대한 믿음은 과장된 것이다.

이러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이다. 이 양식은 기존의 주류 다큐멘터리가 리얼리티 효과를 위해 사용하지만 관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법들을 폭로하면서 다큐멘터를 둘러싼 객관성, 사실성의 신화를 벗겨내고자 한다. 이 양식의 제작자들은, 루미에르의 기행 다큐멘터리에서 로버트 플래허티의 「북극의 나누크」까지 초창기의 다큐멘터리들의 제작 동기가 이국적인 풍물과 문화에 대한 유럽 중심주의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류 다큐멘터리가 철저하게 서구 백인 남성의 시선을 중심으로 타문화, 유색 인종, 여성 등을 호기심과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각성을 다큐멘터리 제작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는 자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어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구성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각성과 목표를 바탕으로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는 투명성의 외피를 쓴 기존의 주류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절대적 권위를 대안적인 화면 구성 방법으로 해체하고 관객의 능동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다.

이 양식에서는 촬영되는 대상과 함께 그 대상을 촬영하는 촬영자가 화면에 나타난다. 때로는 대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의 그림자가 화면에 나타나기도 하며 에펠탑 크기의 카메라가 스스로 시내를 걸어 다니는 비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얼굴 쇼트의 안정적 구도 대신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여 대상의 손발을 보여주기도 한다. 화면 속 인물의 움직임이 정지되기도 하며, 관객에게 안전한 거리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30~40도 각도로 인터뷰 대상자를 촬영하던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고 카메라를 직시하는 대상자를 정면으로 클로즈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촬영 기법과 이것에 의해 구성되는 화면은, 화면에 담기는 시청각적 정보가 카메라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되는 제작물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명칭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통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가 등장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④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가 발달해 온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 쓰이는 기법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6.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관습적인 경우와는 다른 각도에서 대상을 촬영하여 새로운 심리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 ② 화면에 펼쳐지는 이미지는 내레이터가 전달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 ③ 화면에 나타나는 비사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가 창작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④ 이미지에 나타나는 카메라의 그림자를 통해 이미지가 인위적인 도구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드러낸다.
- ⑤ 촬영되는 대상과 함께 촬영자가 등장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바라보게 한다.

7. ㉑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 ②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 ③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④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
- ⑤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8. ㉒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내레이터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 ② 내레이션이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 ③ 내레이터가 다큐멘터리를 믿도록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 ④ 내레이터가 관객에게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다.
- ⑤ 내레이터가 관객에게 다큐멘터리의 허구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밝은 뜰 봄은 좋아 꽃들은 활짝 피고,
하늘을 떠도는 버들개지 흩날린다.
거울 앞 엷은 화장, 맥없이 걷는 걸음,
정채(精彩)*도 줄어들고, 곱던 얼굴 수척하다.
패물 찬 허리 맵시, 소매 걷은 옥 같은 팔,
길목 지켜 바라보는 아리따운 그 눈매여!
아쟁 소리 한 곡조에 슬픈 가락 하염없고,
두 줄기 구슬 눈물 연지불에 흥건하다.
가신 임 방탕하여 돌아올 길 이리 늦고,
피꼬리 노래 소리 애간장 다 끊인다.
맑은 꿈 홀로 나[飛]는, 기나 긴 한밤중에,
집마루의 밝은 달만 한가로이 짝해 줄 뿐,
감도는 깊은 시름 갈래갈래 얽혔는데,
정을 봉해 짜낸 비단 붉은 무늬 찬란컨만,
㉠ 인편도 끊어졌고 기러기도 아니 오니,
길은 멀고 한은 길어 하늘만 아득하다.

- 이규보, 「미인원(美人怨)」

(나)

천리일별(千里一別)에 해 벌써 바뀌도록 일자가신(一字家信)*을 꿈에나 들었을까 운산(雲山)이 막혔는 듯 하해(河海)가 가렸는 듯 의창전(依窓前)* 한매소식(寒梅消息)* 물어볼 길 전혀 없네 일천 리가 머다도 하려니와 ㉡ 약수 삼천 리에 청조(靑鳥)가 전신(傳信)하고 은하수 구만 리에 오작(烏鵲)이 다리 놓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上林苑)에 날아나니 내 가신(家信) 어이 하여 이다지 막혔는고 꿈에나 혼이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라 흐르나니 눈물이요 지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 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니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날 제 사공은 어데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산상구적(山上口笛) 소리는 소 모는 아해로다 황독(黃犢)*은 하산하여 외양을 찾아오고 자는 새는 투림(投林)하여 옛집으로 날아드니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가

- 안조환, 「만언사(萬言詞)」

(다)

위로하는 친구 하나 없고, 부형들만 모여서 슬피 우셨네. 슬프게 우는 어린 자식과 불쌍한 젊은 아내를 두고 떠나네. 북악산이 보일락 말락 점점 멀어짐이여. 임금님 계신 궁궐은 멀고도 깊숙하구나. 속히 돌아 오지 못할 줄을 앎이여. 서울을 돌아보고 눈물지었네. ㉢ 지는 해는 어둑어둑 서산에 걸렸는데, 이상한 새 들은 숲속에서 울며 날아다니는구나. 관서 지방을 바라보니 몇 리나 될까? 길을 물으니 이 천리라네. 대동강을 넘고 청천강을 건너고 나니 기한(岐漢)의 푸른 언덕에 이르렀구나.

동퇴(東灘)를 건너 뒤 남쪽을 바라보니, 외로운 성이 흙덩어리 하나 놓인 것 같구나. 서해의 장연(瘴煙)을 누르고 있고, 북쪽 오랑캐의 가죽 움막과 통하고 있네. 진웅(秦雍)같은 역센 기운은 많고, 추로(鄒魯)의 시서(詩書)는 적구나.

외진 곳에 땅을 빌려 띠집을 엮음이어. 무릎 하나 들어갈 만하면 그만이네. 아, 화(禍)에 걸린 것이 너무도 크고 보니, 누구인들 나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려 할 것인가? 오막살이집이 너무도 조용하니 참새들만 지저귀고, 섬들은 오래되어 이끼만 푸르네. 마른 재에 붙은 사위고, 외로운 침상에 달빛만 가득하네. 양식 향아리에 거미줄 치고, 솔바닥에 이끼 끼었네. 홀로 살아 짝이 없음이어. 눈물만 눈에 가득하네.

[A] 먼 포구에 봄은 깊고, 허물어진 성에는 해가 저문다. 물가에 풀은 우복우복 돌아나고 강에 내리던 비 잠깐 깰 때, 포구에 구름은 침침하고, 물가의 마름만 푸르네. 님 생각 간절하나 볼 수 없어, 그윽한 난초를 맺어 걸고 우두커니 서 있네. 파초 앞에 바람 울고, 차가운 창에 빗방울 흠뻑릴 때, 기러기 하늘 높이 날고, 기름 다한 등잔에 등불만 가물거리네.

내 태어난 날이 좋지 못함을 탄식하며, 부모님이 길러 주신 은혜를 생각하네. 형제가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고, 부모님이 늙어 가심을 통곡하네. 늘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함이어, 마음은 답답하고 열은 올라 타는 듯하구나.

- 이원, 「술지부(述志賦)」

- * 정채(精彩) : 정묘하고 아름다운 빛깔.
- * 일자가신(一字家信) : 집에서 온 짧은 소식.
- * 의창전(依窓前) : 창문 앞에.
- * 한매소식(寒梅消息) : 겨울에 피는 매화 소식.
- * 황독(黃犢) : 송아지.

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대상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⑤ 자연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다.

10. <보기>의 관점에 근거하여 (가)가 [A]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가정할 때, 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대부들의 시가에서 임의 사랑을 잃은 ‘원녀(怨女)’의 노래는 임금의 사랑을 잃은 신하를 의미하는 ‘고신(孤臣)’의 노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대부들은 남녀 간의 애정에 빗대어 임금의 사랑을 잃은 후의 상황과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를 노래하기도 한다.

- ① [A]의 ‘나의 어려운 처지’는 (가)의 여인의 ‘맥없이 걷는 걸음’, ‘수척한 얼굴’ 등의 묘사를 통해 나타낸 것 같아.
- ② [A]의 ‘홀로 살아 짝이 없음’은 (가)의 ‘밝은 달만 한가로이 짝해’ 주는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
- ③ [A]의 ‘봄’ 풍경 묘사에서 볼 수 있었던 ‘나’와 ‘봄’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가)의 ‘꽃’, ‘버들개지’ 등을 통해 극복되고 있는 것 같아.
- ④ [A]의 ‘그윽한 난초’는 (가)에서 ‘정을 봉해 짜낸 비단’의 이미지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어.
- ⑤ [A]의 ‘가물거리는 등불’에 내포되어 있는 ‘나’의 내면은 (가)의 ‘아쟁 소리’, ‘피꼬리 노래 소리’를 들으며 여인이 느끼는 심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11. (나)의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구절을 창작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 4:4 기본 율격을 지킬 것.
- 의미상으로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

- ① 고향산천이 어제 본듯 하는구나
- ② 부귀공명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리라
- ③ 보이는 것이 다 좋고 듣는 것이 다 기쁘다
- ④ 이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 줄 모르느고
- ⑤ 저 새를 벗 삼아도 이내 시름 잊을 길이 없도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길은 멀고'는 화자가 느끼는 심정적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의 '약수', '은하수'는 '청조', '오작'에 의해 극복되는 공간이다.
- ③ ㉢의 '이상한 새'는 화자의 스산한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볼 수 있다.
- ④ ㉠와 ㉡의 '기러기'는 ㉢의 '전신'을 수행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의 '하늘', ㉢의 '지는 해'는 화자의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13. <보기>를 활용하여 (다)에 대해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시적 공간을 중심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textcircled{\text{가}}$ $\textcircled{\text{나}}$
 서울 → 관서의 외진 곳

- ① ㉠에서 ㉢로의 이동 경로는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 ② ㉠에 대한 서술 내용으로 보아 ㉢에서 화자는 제한된 공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 비해 ㉢에 대한 서술에는 친족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④ ㉠에 대한 서술에서는 주로 서울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에 대한 서술에서는 화자가 현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인 왕씨와 두 첩 장씨와 송씨를 둔 명나라 승상 진양의 아들 숙문은 예부상서 석홍의 딸 난영과 혼인한다. 한편 유시량은 천자의 첩인 누이를 동원하여 숙문을 강제로 자신의 딸 매영과 혼인하게 한다.

일일은 숙문이 부모님께 문안인사 들어오다 도로 나가니 송씨가 바삐 따라 나와 문 왈, “낭군이 아까 들어오다가 도로 나가심은 어찌뇨?”

숙문이 왈, “불상견(不相見)할 사람이 있으며 도로 나간 것이다.”

송씨가 왈,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더이까?”

숙문이 왈, “전일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더이다.”

송씨가 노왈, “그 사람은 곧 낭군의 부인이거늘 어찌 피하리오?”

숙문이 왈, “생의 부인은 다만 석씨니, 또 누가 있으리오?”

송씨 대로(大怒) 왈,

“낭군의 병세가 중하여 신부더러 진가 집안에 먼저 찾아와 성례(成禮)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 다른 말씀은 어찌이뇨?”

숙문이 미소 지으며 왈,

“성인이 법을 정하사 삼강오륜이 있나니, 혼례는 납빙(納聘)*한 후 신랑을 보내어 신부를 맞나니 생은 가지 않았고, 또 유씨의 근본이 유 시량의 적녀가 아니라 하니 차마 부인으로는 대접할 수 없나이다.”

송씨가 근본이 탄로남을 알고 침음(沈吟) 왈,

“그래도 유씨를 첩으로는 삼을 수 없나이다. 유 시량이 처를 내친 후 첩이던 제 친 언니를 부인으로 삼고 그 딸을 적녀를 삼았으니 어찌 부인이 못 되리오?”

숙문이 왈,

“아무리 금달공주라도 부인으로는 못하리니, 서모(庶母)가 유씨를 첩 삼는 것이 미안하거든 명문거족(名門巨族)에 구혼하여 백년을 화락하게 하소서.”

<중략>

매영이 대로(大怒)하여 상을 박차고 왈,

“소축생(小畜生)의 무례함이 어찌 이 지경에 미치리오. 내 당당히 축생(畜生)*과 요녀를 죽여 고기를 찢고 말리라.”

하고 설난각에 이르니, 석 소저가 축을 대하여 고서를 보다가 매영이 움을 보고 목연히 단좌하더니, 매영 바로 난간에 올라 눈썹을 거스리고 눈을 독히 뜨고 꾸짖어 왈,

“나는 유 낭량의 친조카요, 유 시량의 천금 소교(小嬌)*라. 존귀함이 금지옥엽을 부러워 아니커늘, 천명을 받자와 진생의 소실(小室)이 되니 어찌 욕되리오. 네 아버 불충을 품고 모반의 마음이 있음을 내 알되, 차마 입 밖에 내지 않았더니, 석씨 천녀가 교언영색으로 진가 적자를 농락하여 나를 없음같이 하니 내 어찌 잠잠하리오. 네 일찍 돌아가면 함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천자에게 고하여 너희 부녀의 머리를 베리라.”

석 소저가 뜻밖에 참욕을 보매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나 안색을 바로 하고 목연히 단좌하매, 매영이 더욱 노하여 집기(什器)를 부수고 대답치 아니함을 따져 물으니, 석 소저가 대로하여 눈썹을 거스리고 옥성을 가다듬어 왈,

“네 스스로 존귀함을 금달공주에 비하나, 내 일찍 능멸함이 없고 또 묻나니 뉘라서 나의 가친이 모반의 마음을 품었다 하느뇨? 허무맹랑한 말로 나를 모함하니 어찌 신명이 두렵지 않으리오? 나의 거취는 너의 알바 아니니 생심(生心)도 방자히 굴지 말라.”

말을 마치매 사기 썩썩하니 매영이 더욱 노왈,
 “네 아버 왕망(王莽)*과 동탁(董卓)*보다 더함을 만민이 다 아는 바이니, 뉘 모르리오?”
 하고, 서안(書案)을 박차니,
 송씨가 이르러 매영의 손을 이끌고 나오며 왈,
 “이런 욕을 보시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나 같을진대 즉각 죽어 무안함을 씻으리로다.”
 말을 마치자 냉소하고 나가니, 석 소저가 그 숙질(叔姪)의 거동을 십분 분해하나 안색을 변하지 않고,
 다만 참욕이 아버지에게 미침을 탄식하더라.

매영이 처소에 돌아와 숙문의 박정함을 이르고 애통해 하니, 송씨 왈,

“내 여차여차 이르면, 진냥은 대현군자라 반드시 석씨에 대한 은혜(恩愛)를 옹기리니, 이리 한 후에 설계(設計)하리라.” 하니, 매영이 감사해 하더라.

일일은 송씨가 병을 핑계로 불출(不出)하니 숙문이 설희당에 와 송씨를 보니, 송씨가 울며 왈,
 “첩이 십오 세에 장씨와 함께 존문에 의탁하매 부인이 은덕으로 거느리시니, 첩 등이 그 은혜를 폐부에 새겼더니, 근일로 승상께서 길거리의 이슬처럼 보시매 바람이 끊친지라. 장씨는 일녀를 두었으나 첩은 바람이 오직 낭군이라. 석 소저가 나의 무자(無子)함을 업신여김이 심하매, 설움을 품고 세월을 보내더니, 의외에 유씨 수절하여 규방에 늙으려 하매 낭군께 천거함이러니, 석 소저가 존당과 낭군의 안전(眼前)에서는 효순하나 첩을 사사로이 보면 이를 갈며 왈,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하며 욕을 보이니, 비명횡사할까 두렵고 낭군이 또 유씨를 박대함이 지극히 심하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나이다. 첩의 설움은 하늘 밖에 뉘 알리오?”

[A] 숙문이 듣기를 마치고 사죄 왈,

“자(子)의 우둔함으로 석씨 여차하니 쫓고자 하나 존당이 계시매 능히 결단치 못하나이다.”

하고 위로하나 심중에,

‘석씨의 근본 성덕으로 보건대 어찌 이리 행하리오? 그러나 서모의 말이 이 같으니 혹자 일시 분을 참지 못하여 힐난함이 있는지 동정을 살펴보리라.’ 하고 설난각에 이르니, 석 소저가 서안을 의지하여 신세를 탄식하여 옥안에 눈물이 어룽져 있더니, 숙문을 보고 근심스런 얼굴을 거두고 맞이하니, 숙문이 부인을 살펴보니 안색에 근심이 가득하거늘 이 반드시 이유 있음을 알고 물어 왈,

“그대가 집안에 들어온 후 특별히 험한 일이 없더니, 송 서모의 말이 여차여차하니 그 죄 어디까지 이뇨? 진실로 그러하면 내 비록 어리석으나 가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

① 소저가 숙문의 심한 질책을 들으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놀라고 또 그 사리 분명치 못함에 다만 들을 따름이라. 숙문이 헤아리되, ‘송서모의 말이 옳도다.’하며 소매를 떨치고 나가니 소저가 한탄하더라.

— 작자 미상, 「수저옥란빙」

*납빙(納聘):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축생(畜生): 짐승

*소교(小嬌): 아리따운 미녀.

*왕망(王莽)과 동탁(董卓): 전한과 후한의 간신.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③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 ④ 대화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한 부분이 있다.

1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2점)

- ① 숙문은 매영과의 만남을 꺼리고 있다.
- ② 숙문은 매영의 근본이 미친함을 알고 있다.
- ③ 석 소저는 매영과의 충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 ④ 숙문은 송씨의 말을 들은 후 석 소저를 질책한다.
- ⑤ 매영은 예법을 갖춘 혼례를 정식으로 올리지 못했다.

16. [A]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송씨의 계략	—	숙문의 인품을 이용함. ①
		숙문의 동정심을 유발함. ②
		숙문의 이중적 태도를 원망함. ③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을 음해함. ④
↓			
		숙문이 석 소저에 대해 의심을 품음. ⑤

17. ㉠의 상황에서 '석 소저'의 심정에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임이 생각해주시매 철썩 같이 믿었더니
 날 생각하던 마음이 어디로 사라진고.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이면 이토록 서러우랴.
- ② 마음이 어린 후(後)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니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③ 금생려수(金生麗水)라 한들 물마다 날 것이며
 옥출곤강(玉出崑岡)이라 한들 되마다 날 리 없네.
 아무리 사랑이 중타한들 님님마다 좃으랴.
- ④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하여 모를손가.
 세사(世事) 묵어지고 인사(人事)도 묵었으니
 천사만사(千事萬事) 씻어내고 옛 인연 이읍소서.
- ⑤ 간 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 물을 거슬러 흐르고져 나도 울어 네리랴.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질은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내놓는 과정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형광현상’이라 한다. 형광등은 이 현상을 이용하여 빛을 낸다.

형광등은 양쪽 끝이 봉해진 좁은 유리관과 유리관에 발린 형광물질, 두 개의 전극으로 되어 있다. 관에는 미량의 아르곤, 네온, 크립톤 가스와 함께 한두 방울의 액체 수은이 들어 있다. 액체 수은 중의 일부는 증발해 수은 가스가 되는데, 유리관 속 가스의 약 1,0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이 수은 가스가 빛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광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양쪽의 전극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야 하는데, 형광등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전극을 가열하여 전자가 전극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쪽 전극에 높은 전압을 걸어 전자가 방출되게 하는 것이다. 일단 전류가 흐르면 형광등의 전극에서는 전자가 지속적으로 방출된다. 이 전자들은 유리관 속의 수은 원자들과 충돌하여 그 에너지를 수은 가스의 원자에 전달한다.

고전물리학의 원자모형에서 원자는 핵과 몇 개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자는 보통 에너지가 낮은, 핵에 가까운 궤도에 위치한다. 이러한 전자 배열을 ‘바닥상태’라고 한다. 상온에서 유리관 속 수은 원자의 전자들은 이러한 바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은 원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수은 원자의 전자는 비어있는 바깥쪽의 다른 궤도로 옮겨 가게 된다. 이처럼 바닥상태가 아닌 전자의 상태를 ‘들뜬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들뜬상태는 오래 가지 않는다. 수은 원자의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원래의 궤도로 내려오는데 이를 ‘전이과정’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 들뜬 상태와 바닥상태의 궤도가 가진 에너지의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게 된다.

수은 원자의 전자궤도는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출하는 빛도 대부분 높은 진동수인 자외선이다. 우리 눈은 가시광선 영역만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쬐일 경우 해롭기까지 하다. 따라서 형광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자외선은 유리관에 도포된 형광물질을 자극함으로써 형광물질 원자의 전자를 들뜨게 하며, 일부 에너지는 열로 변환된다. 따라서 들뜬 상태의 형광물질 원자의 전자가 바닥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은 원래 흡수했던 자외선의 에너지보다 적게 된다. 또한 형광물질의 원자는 수은 원자와는 달리 전자궤도 간 에너지 준위 차가 크지 않으므로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보다 낮은 진동수의 가시광선이 된다.

이처럼 들뜬 원자가 전이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원소가 방출하는 빛의 고유한 진동수는 자외선·가시광선과 같은 빛의 종류, 가시광선 내에서의 빛깔을 결정한다. 형광등의 백색광은 형광물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 색이며, 형광물질을 달리하면 다양한 빛깔의 형광등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흰 옷을 더욱 희게 만드는 세제에도 이용된다. 자외선을 흡수하여 파란색을 방출하는 형광물질을 세제에 사용하면, 세탁 후 옷감에 남아있는 형광물질이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 중 파란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함으로써 흰 색을 더욱 하얗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물질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은 과학적 탐구에도 이용된다. 어떤 물질을 분석할 때 자외선을 쬐어 나오는 빛을 분석하면 물질의 구성원소를 알아낼 수 있으며 별빛을 분석하여 원소가 방출하는 고유한 빛을 통해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

1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구성하는 요소
- ②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 ③ 형광등에서 전자를 방출시키는 방법
- ④ 형광등을 다양한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
- ⑤ 형광등의 수은 원자가 자외선을 방출하는 이유

19. <보기>를 활용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원자 모형>

A : 바닥상태의 전자 궤도
 B : 들뜬상태의 전자 궤도

- ① 수은 원자에서 ㉠과 ㉡의 과정이 진행되면 빛이 방출된다.
- ② 형광등에서 수은 원자는 형광물질 원자보다 A와 B의 에너지 차가 크다.
- ③ 수은 원자와 형광등의 형광물질 원자에서 전자는 A에 위치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 ④ 형광등의 형광물질이 흡수한 에너지의 양은 ㉡의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같다.
- ⑤ 수은 원자와 형광물질의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A와 B의 에너지 차에 의해 결정된다.

20. 위 글의 ‘형광등’과 <보기>의 ‘고압 수은등’을 비교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거리의 가로등으로 쓰이는 고압 수은등은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수은은 자외선은 흡수하고 가시광선은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수은은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수은의 압력을 충분히 높게 하면 높은 밀도로 인해 한 원자가 내놓는 자외선을 옆의 원자가 다시 흡수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가시광선의 방출량을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방출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고압 수은등이다.

- ① ‘형광등’과 ‘고압 수은등’의 수은 원자 밀도는 다르다.
- ② ‘형광등’과 ‘고압 수은등’은 모두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직접 이용한다.
- ③ ‘고압 수은등’에서는 ‘형광등’보다 수은 원자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빈도가 높다.
- ④ ‘고압 수은등’에서는 ‘형광등’보다 수은 원자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의 양이 많다.
- ⑤ ‘형광등’과 ‘고압 수은등’에서 수은 원자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댓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 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린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너댓 골 : 저 너머의 골짜기.

* 만나도질 : 만나질지도 모르는.

(나)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은 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를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희들아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를 때까지

아희들아.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다)

포옹(抱擁)할 ㉠ 꽃 한 송이 없는 세월을
 얼룩진 역사(歷史)의 찢긴 자락에 매달려
 그대로 소스라쳐 통곡하기에는 머언 먼 가슴 아래 깊은 계단(階段)에
 ㉡ 도사린 나의 젊음이 스스로워 멈춰 선다.

좌표(座標) 없는 대낮이 밤보다 어둔 속을
 어디서 음악(音樂) 같은 가녀린 소리
 철그른 가을비가 스쳐 가며 흐느끼는 소리
 조국(祖國)의 아득한 햇무리를 타고 오는 소리
 또는 목마르게 그리운 너의 목소리
 그런 메아리 속에 나를 묻어도 보지만,

연이어 달려오는 인자한 얼굴들이 있어
 ㉢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고
 두 손 벌려 ㉣ 차가운 가슴을 어루만지다간
핏발 선 노한 눈망울로 하여
 다시 나를 질책(叱責)함은
 아아, 어인 지혜(智慧)의 빛나심이뇨!

당신의 거룩한 목소리가
 내 귓전에 있는 한,
 귓전에서 파도처럼 멀리 부서지는 한,
 이웃할 별도 가고, 소리 없이 가고,
 어둠이 황하(黃河)처럼 범람할지라도 좋다.

얼룩진 역사에 만가(輓歌)를 보내고 참한 노래와 새벽을 잉태(孕胎)한 함성(喊聲)으로
 다시 억만(億萬) 별을 불러 ㉤ 사탄의 가슴에 창(槍)을 겨누리라.
새벽 종(鐘)이 울 때까지 창을 겨누리라.

- 신석정, 「전아사(餞迓詞)」

2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④ 현실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절대적 존재에 의지하여 고통을 극복하고 있다.

22.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시구의 반복으로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시어를 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음성 상징어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명령형 종결 어미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3. (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청청한 소리'와 (다)의 '핏발 선 노한 눈망울'은 화자를 일깨우는 계기를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② (나)의 '겨울에 죽은 땅'과 (다)의 '대낮이 밤보다 어둔 속'은 화자가 처한 현실을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③ (나)의 '얼음을 켜다'와 (다)의 '창을 겨누리라'는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④ (나)의 '운다'와 (다)의 '새벽을 잉태(孕胎)한 함성(喊聲)으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 ⑤ (나)의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와 (다)의 '새벽 종이 울 때까지'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시구로 볼 수 있어.

24. <보기>를 고려할 때, ㉠~㉤ 중 이질적인 것은? (3점)

<보 기>

(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의 뜻부터 알아야 한다. 제목 '전아사(錢迓詞)'는 '작별하고 새로 맞으며 부르는 노래'로 풀이 할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는 보내고 싶은 것과 맞이하고 싶은 것이 있다.

- ① ㉠: 꽃 한 송이 없는 세월
- ② ㉡: 도사린 나의 젊음
- ③ ㉢: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
- ④ ㉣: 차가운 가슴
- ⑤ ㉤: 사탄의 가슴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신화는 기록으로 전하는 문헌 신화와 구비로 전승되는 구비 신화가 있다. 문헌 신화는 시조의 출생과 국가의 창건 과정을 기술한 건국 신화가 대부분이고, 구비 신화는 서사 무가로 구연되는 무속 신화가 대부분이다.

건국 신화는 하늘을 상징하는 남신과 땅이나 물을 상징하는 여신이 결합하고 시조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주몽 신화」와 같은 북방의 건국 신화와 「박혁거세 신화」와 같은 남방의 건국 신화는 내용상 차이를 보인다.

북방 신화에서는 천신계의 남성과 지신 혹은 수신계의 여성이 결합하여 혼례를 올린 후, 시조가 출생하여 왕으로 즉위한다. 예를 들어 「주몽 신화」에서 주몽은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와 수신인 하백의 딸 유화부인 사이에서 알로 탄생한다. 그런데 주몽은 해모수의 왕국을 계승하여 즉위한 것이 아니라 금와왕이 다스리던 동부여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즉, 주몽은 해모수족과 하백족이 통합된 새로운 집단에서 성장하여 권력투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시조의 출현 이전에 부모의 혼례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 북방 신화는 시조의 부모가 다스리던 국가가 먼저 존재했음을 말해 준다.

반면에 남방 신화는 시조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하는 분위기만 서술된 상태에서 시조는 알로 탄생한다. 그리고 시조가 왕으로 즉위한 후 시조의 혼례 과정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박혁거세 신화」를 보면 신라는 건국되기 이전에 여섯 씨족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씨족마다 각각의 촌장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박혁거세가 탄생하자 여섯 촌장이 모여 공통의 통치자로 박혁거세를 ㉠ 추대함으로써 비로소 씨족 단위의 공동체와는 다른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시조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 알영과 혼례를 올리는 것은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첫 번째 통치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박혁거세는 육촌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고, 그의 부인 알영도 다른 곳에서 도래한 존재였다. 박혁거세와 알영이 육촌민들에게 성인으로 존경 받고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육촌민보다 문화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신화에서 건국신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속신화이다. 무속신화는 고대 무속 제전에서 형성된 이래 부단히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다. 이러한 무속 신화 중에서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창세 신화」와 「제석본풀이」는 남신과 여신의 결합이 제시된 후 그 자녀가 신성의 자리에 오른다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이 북방의 건국신화와 다르지 않다. 한편, 무속신화 중 성주신화에서는 남성 인물인 ‘성주’가 위기에 빠진 부인을 구해내고 출산과 축제를 통해 성주신의 자리에 오른다. 이는 대부분의 신화가 보여주는 부자(父子) 중심의 서사 구조가 아닌 부부 중심의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특이한 유형을 보여주는 신화 중에 제주도의 「삼성 신화」가 있다. 「삼성 신화」에서는 남성이 땅속에서 솟아나고 여성이 배를 타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남성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점은 부계 혈통의 근원을 대지에 두었다는 것으로 본토의 건국 신화와 대조된다. 그리고 여성이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은 여성이 도래한 세력임을 말해 준다. 특히, 남성은 활을 사용하고 여성이 오곡의 씨를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성으로 대표되는 토착 수렵 문화에 여성으로 대표되는 농경 문화가 전래되었음을 신화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25.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2점)

- ① 신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② 한국 신화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③ 북방 신화와 남방 신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④ 무속 신화가 건국 신화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⑤ 건국 신화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6.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와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은 : 문학 시간에 발표할 과제로 건국 신화를 창작하면 어떨까?
 두호 : 좋았어. 남방의 건국 신화 형태로 쓰자.
 영은 : 그렇다면 시조의 부모를 굳이 등장시킬 필요는 없겠네. ①
 두호 : 그래도 시조의 부계 혈통은 그 근원을 하늘에 두어야겠지. ②
 영은 : 그렇지. 남성을 의지로부터 이주해 온 존재로 설정해야지. ③
 두호 : 시조가 혼례 과정을 거친 후 왕으로 즉위하는 순서로 서술하자. ④
 영은 :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첫 통치자가 등장한 면도 넣어야 할 거야. ⑤

27. 위 글을 읽고 독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신화에는 부자 중심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군.
- ② 무속 신화는 고대 무속 제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군.
- ③ 대부분의 신화는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다루고 있군.
- ④ 「삼성 신화」에는 여성이 도래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군.
- ⑤ 건국 신화에서는 결국 토착 세력이 통치권을 장악하는군.

28.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옹립(擁立) ② 천거(薦舉) ③ 추천(推薦)
- ④ 선정(選定) ⑤ 선출(選出)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산’의 첫소리를 ‘싼’의 첫소리와 다른 소리라 인식하지만, ‘췌’의 첫소리와는 같은 소리라 인식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식은 철자법에 반영되어 ‘산’과 ‘췌’의 첫소리를 같은 글자로 표기하고 ‘싼’의 첫소리는 다른 글자로 표기한다. 우리는 왜 ‘산’의 첫소리는 ‘췌’의 첫소리와 같은 소리이고 ‘싼’의 첫소리와는 다른 소리라고 판단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의 첫소리는 ‘산’과 ‘췌’의 첫소리와는 달리 소리를 내는 방법, 즉 조음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세게 발음되는 된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는 위치, 즉 조음 위치에 관한 한 ‘산’의 첫소리는 ‘싼’의 첫소리에 가깝다. ‘산’의 첫소리와 ‘싼’의 첫소리는 혀끝을 윗잇몸에 접근시켜 조음하는 반면 ‘췌’의 첫소리는 혀의 앞부분을 셴입천장에 접근시켜 조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과 ‘싼’의 첫소리를 다른 소리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우리 두뇌는 다양한 음성을 ‘음소(音素)’라고 부르는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소리 단위로 구분하여 받아들인다. 이 음소는 음성의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음소가 바뀌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소리가 어떤 특정한 언어에서 언중들에게 다른 소리로 인식되고 또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면 그 두 음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 어떤 한 가지 소리의 차이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소리의 짝을 ‘최소대립쌍’이라 한다. 예를 들어 ‘산’과 ‘싼’은 중간소리, 끝소리는 모두 같은데 단지 첫소

리에 /ㄱ/과 /ㄴ/ 중에서 어느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에서 /ㄱ/과 /ㄴ/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며, /ㄱ/과 /ㄴ/은 최소대립쌍이다. 두 소리가 서로 다른 음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최소대립쌍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한 음소 내에서도 여러 다른 소리들이 있다. ‘물’의 /ㄹ/과 ‘바람’의 /ㄹ/은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데도 언중들은 이 두 소리를 같은 음소라고 인식한다. ‘물’의 /ㄹ/은 혀가 윗잇몸 쪽에 닿아 혀의 양 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l]이고, ‘바람’의 /ㄹ/은 혀끝이 윗잇몸에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r]이다. 이렇게 하나의 음소도 발음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데, 이 소리들을 그 음소의 ‘변이음’이라고 한다.

한 음소에 속하는 변이음이 나타나는 환경은 서로 ㉠ 뒤바뀌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물’의 경우처럼 음절 끝, 즉 자음 앞이나 휴지(休止) 앞에서 /ㄹ/이 [r]로 실현되거나, ‘바람’의 경우처럼 모음 사이에서 /ㄹ/이 [l]로 실현되는 일은 없다. 이럴 때 [l]과 [r]은 상보적 분포를 가진다고 말한다.

한 언어에서 음소로 분류되지 않는 변이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음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바람’[param]의 [r]과 ‘물’[mul]의 [l]은 /ㄹ/이라는 한 음소의 변이음이지만 영어에서는 다른 음소이고, 반대로 위에서 보았듯이 ‘산’의 /ㄱ/과 ‘싼’의 /ㄴ/은 영어에서는 같은 음소지만 국어에서는 다른 음소로 인식된다.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3점)

- ① 언어에서의 변이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음소가 될 수 있다.
- ② 한 언어에서 소리는 달라도 동일한 음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 ③ 한 언어에서 동일한 소리가 서로 다른 음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 ④ 한 언어에서 조음 위치가 같아도 조음 방법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한 언어에서 어떤 소리의 최소대립쌍이 존재하면 그 소리는 음소로 인정된다.

30.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 ① 음소의 개념
- ② 최소대립쌍의 기능
- ③ 대립 관계의 의미
- ④ 변이음과 상보적 분포의 관계
- 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음소의 분류

31.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밭’, ‘밥’, ‘보리’, ‘불’, ‘빨’, ‘풀’

- ① ‘밭’의 /ㄹ/과 ‘보리’의 /ㄹ/은 변이음이다.
- ② ‘불’과 ‘밭’의 /ㅍ/와 /ㅂ/는 대립 관계에 있다.
- ③ ‘불’과 ‘밥’의 종성 /ㄹ/과 /ㅂ/은 최소대립쌍이다.
- ④ ‘불’, ‘빨’, ‘풀’에서 /ㅍ/, /ㅃ/, /ㅍ/은 의미를 분화하고 있다.
- ⑤ ‘밭’과 ‘밥’의 첫소리 /ㅂ/은 조음 위치가 같다.

32. ㉠의 ‘뒤-’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뒤엎다 ② 뒤엎다 ③ 뒤섞다 ④ 뒤덮다 ⑤ 뒤꿘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은 크게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경쟁시장은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 비경쟁시장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데, 이는 다시 과점시장과 독점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시장에서는 하나의 공급자가, 과점시장에서는 몇몇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독과점은 시장 질서의 왜곡, 소비자들의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병폐를 낳기 때문에 정부는 독과점금지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견제한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인허가 정책이나 보조금 정책 등을 써서 독과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 전기 등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적 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조선, 자동차 등의 대형 기업 부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과점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적정가격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때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러한 최고가격제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수요자인 상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격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최고가격제는 공평성을 추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가격을 10만원 아래로 묶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살 수 있어 공평성이 증가된다. 최고가격제는 전시(戰時)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활용된다. 비상시에 가격이 급등한 쌀을 정부에서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정하면 소비자들은 쌀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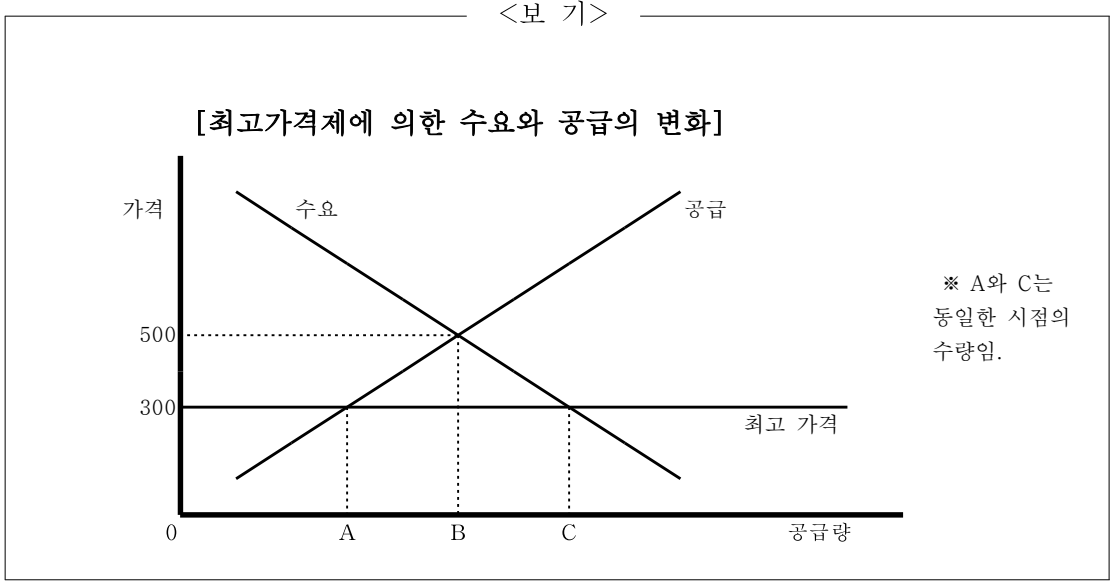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독과점을 형성하여 수요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익이 감소하여 공급을 줄이는 반면,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수요는 늘어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다. 정부의 보충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실시한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재화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암시장이 생겨 정부가 제한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 맡겼더니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쌀농사가 풍년이라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자. 쌀의 가격이 싸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농부들은 생산 비용도 건질 수 없다. 이럴 경우 정부는 농부들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쌀을 거래할 수 없도록 ‘최저가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농부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최저가격으로 인하여 수요보다 많은 쌀이 생산된다. 이때 정부는 그 잉여량을 구입했다가, 흉년 때 방출하여 쌀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도 있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공평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 ②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균형 가격이다.
- ③ 과점시장에서는 공급자들끼리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④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⑤ 가격 정책에 의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정적 효과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3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최고가격제에 의해 가격이 제한되었을 때의 공급량이다.
- ② B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다.
- ③ C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다.
- ④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B에서 A를 뺀 분량만큼 공급량이 감소된다.
- ⑤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정부는 C에서 B를 뺀 분량만큼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35. 글쓴이가 <보기>의 자료를 접했다고 할 때, 위 글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시민들의 일상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며,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 사태는 공공재였던 전기 공급 사업을 민영화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민간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전기 요금이 더 싸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발전회사들은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합하여 발전 시설을 인위적으로 폐쇄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 ①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② 비경쟁시장이 경쟁시장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한다.
- ③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 ④ 공공재가 자유 경쟁에 맡겨졌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독과점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36. ㉠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3점)

- ① 노인 복지 요양 시설의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 ② 장애인에게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 ③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준다.
- ④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 이자율을 고정시킨다.
- ⑤ 서민용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를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미 오래 전에 폐기 처분했어야 할, 여러 시간대를 거쳐오면서 누적된, 그에게 달라붙어 있던 약간의 기우——언젠가는 한 번쯤 쓰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우——와 결단력의 부족으로 시골에서 하숙집으로 하숙집에서 누나네 집으로 누나네 집에서 이 방까지 따라오게 된, 물론 책의 내용보다는 책의 크기와 두께에 의해 분류되어 정연한 더미를 만들면서 얇고 좁은 널빤지를 받쳐 주는, 언제라도 눈에 띄기를 기다리며 제목을 앞쪽으로 내보이며 쌓여 있는 수직적 투자가치 전문 서적과는 구별돼, 수평으로 무더기로 뒤죽박죽 쌓여 있는 책 더미들을 그는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교과서와 잡지들, 교양서적과 소설류, 한 번도 읽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끼어들게 된 자서전류와 사전류, 충동으로 구입되어 한두 장 넘겨진 후 폐기처분되기 전에 그의 방에 임시주차하고 있는, 심령과학, 경제정보, 육법전서…… 같은, 그의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침대 구실을 하는 책들의 제목을 그는 읽지 않는 채로 보고 있다. 방심한 그의 시선은 아래층까지 내려오고 두드러지는 두께와 질은 표지의 『최신 지리부도』에 잠시 머문다.

그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기차나 버스로.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 산간 지방이나 제주도, 홍콩과 마카오, 대만이나 하와이 정도까지는. 혹은 배를 타고 일본의 규슈나 오사카까지는. 거리에 따라, 이박 삼일 정도, 혹은 삼박 사일, 최대한 사박 오일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당일이라면 어디든 비행기로 편도여행 정도는 할 수 있다. 칸이나 뉴욕, 블라디보스톡이나 통북투까지. 그는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야자수 밀을 반바지를 입고 거닐며 호텔의 수영장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호화 호텔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도 있다. 향료 냄새가 풍기는 이국 식당에서 바다가재 요리를 맛볼 수도 있다. 안내서를 펴들고 박물관을 거닐고 접는 의자를 들고 공원의 녹음을 바라보며 신문을 볼 수도 있다. 혹은 호텔 방 안에서 모르는 나라 말의 텔레비전 앞에 누워 지구 어디에나 풍성한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야자수 열매를 깨물어 먹을 수도 있다.

[A] 딱딱한 장정과 크기 때문에 맨 밑층으로 가게 된, 책장 전체의 무게를 받고 있는 그 책을 꺼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정화된 집중력과, 놀라운 체계를 동원해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담배를 켜. 한층 한층 비우면서 맨 밑층의 책 더미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널빤지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 것을 감안하면서, 좀 힘이 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릎으로 널빤지를 받친 후, 그 책이 끼어 있는 맨 밑의 더미에서 그 한 권만을 빼낼 수도 있다. 혹은, 그보다 나은 방법도 있다. 아래층의 널빤지를 메우는 책의 높이보다 약간——일이 센티미터 정도——더 높은 책 더미를 바로 옆에 준비해 밀어 넣은 다음 그 책이 끼어 있는 더미를 빼내 절망적으로 밑에 깔린 그 책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 모든 해결책은 그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며, 지리부도를 꺼내는 일을 포기한다. 설령 애를 써서 그 책을 꺼냈다고 하자. 이미 출판된 지 십년이 넘은 『최신 지리부도』가 지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이 너무도 많은 국경이 변경되었고 지금도 변경중이다. 게다가 꼭 필요한 장소는 늘 지도에 나와 있지 않다. <중략>

그는 매일 외출한다. 나가기 전에 서랍에서 지폐 한 장씩 집어 들고, 그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 않는다. 기껏해야 서울역이나 남산, 야구장 근처나 대공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사람들, 엉덩이를 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의자에서 침묵하는 연인들, 것처럼 가만히 앉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온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성냥불 부탁이나 시간을 묻는 일 이외에 그도 그들도 말할 것이 없다. 그것은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들의 철학에 어긋나는 일이다.

어느 날 서랍을 열었을 때, 그를 바라보던 지폐의 얼굴 대신 빈 서랍 밑바닥의 누런 합판이 잘못 숨긴 거짓말처럼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굶어죽지는 않을 것이다. 굶어죽다니. 그는 외출을 멈춘다. 그렇지만 꼭 더 이상 지폐가 없어서는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는 이제는 어떤 이유건 꼭 외출을 할 필요도 없으며 외출이라면 할 만큼 했다. 없어지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라면 할 만큼 했다.

무엇에 대해서나 모른다고, 싫다고, 아마라고 대답하면서 이방인을 꿈꾸는 사람들, 완벽한 척하는 세상의 실추를, 부재를 통해 증명해 보이려고 잠자는 사람들, 천재가 되어 버린 박제들, 그는 수많은 그들조차 되지 못했다. 그들의 길고 긴 계보는 아득히 끝이 없지만 그는 그 비밀결사에 입적을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무서워했고 걱정했으며 경종을 울렸고 좌절하거나 이겨 냈다. 그들은 너무 완벽했으며 비극적이었고 진지했으며 감동적이었다.

그가 부재한 사이 세상이 개과천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그 사이 더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시간을 멈추면서 주인이 되어 보려는 것도 아니었고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증명할 것도 없었다. 그는 더 비싸지지도 않았으며 더 싸지지도 않았다. 어쨌건 그는 살았다. 그 동안 잠시 잘, 살고 있음을 잇을 정도로 잘, 살았을 뿐이다.

어느 날 그는 군악대의 북소리와 함께 일어난다, 잠시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사 분 후면 다시 호들갑 떠는 북소리와 함께. 그는 전화를 한다. 아무 용건도 없이. 그는 편지를 쓴다. 그는 찻잔을 씻고 책상을 정리하며 침대보를 깔고, 저 더운 대륙의 늙은 대령을 흉내내며 병 밑에 늘어붙은 커피를 긁어낸다.

책상에 앉기 전에 그는 자동적으로 오디오의 버튼을 누른다. ‘푸른 기차’. 그가 다시 들은 음악의 제목은 이렇다. 모든 음악을 듣는 이유가 늘 그렇듯이, 이유 없이. 어떤 음악이 있다. 처음 듣고 조금 좋아한다. 혹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 음악도 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어찌다 한 소절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 곡은, 서서히, 하루를 지내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된다. 다른 곡, 다른 핑계에 매달리기 전, 잠시 동안. ㉠ ‘푸른 기차’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찌잔 말인가.

- 최윤, 「푸른 기차」

37. 등장인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동화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다.
- ② 운명에 저항하며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 ③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인물이다.
- ④ 미래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⑤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며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인물이다.

38.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를 누군가 관찰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는 ‘나’의 변형된 모습이라 할 수 있어.
- ② ‘그’는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그’의 내면 의식이 드러나 있어.
- ③ ‘그’는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들의 철학’을 긍정하며 ‘외출’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찾은 인물로 보아야 할 거야.
- ④ 『최신 지리부도』를 보며 ‘그’가 여행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이 연상 작용을 일으켜 다음 생각을 이끌어 내고 있군.
- ⑤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지도 않았고’,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등과 같은 반복되는 부정문을 통해 삶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어.

39. [A]에 나타난 ‘그’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포도밭을 지나다가 탐스럽게 달린 포도를 보았다. 여우는 그 포도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런데 포도는 조금 높은 곳에 달려 있었다. 여우는 포도를 따 먹을 궁리를 이리저리 해 보았지만 자신의 키로는 닿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여우는 ‘저 포도는 분명히 신 포도일 거야.’라며 포기한다.
- ② 목이 몹시 마른 까마귀가 물을 찾아다니다가 물이 담긴 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주둥이가 짧아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까마귀는 부근의 돌을 물어다가 단지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니 물 높이가 훨씬 높아졌다. 그리하여 까마귀는 물을 마실 수 있었다.
- ③ 고집이 센 나귀를 몰고 산길을 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낭떠러지 쪽으로 가려 고집을 부렸다. 사내는 나귀를 잡아당기며 얼마 동안 씨름을 계속했다. 나귀의 기운을 이겨 낼 수 없었던 사내는 나귀의 줄을 놓아 버렸다. 그러자 나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 ④ 욕심 많은 개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다 다리 아래를 보니 저와 같은 개 한 마리가 커다란 고기를 물고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욕심 많은 개는 그 고기를 빼앗으려고 눈을 부릅뜨며 쩡쩡 핏었다.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퐁당’ 하고 떨어졌다.
- ⑤ 쥐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자를 그만 깨우고 말았다. 화가 난 사자가 쥐를 잡아먹으려 하자, 쥐는 살려만 주면 은혜는 꼭 갚겠다고 빌었다. 사자는 작은 쥐가 무슨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고 비웃으며 쥐를 놓아 주었다. 며칠 후 뒷에 걸려 울부짖는 사자를 본 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밧줄을 쏘아서 사자를 구했다.

40. ㉠을 <보기>와 같이 표현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보 기> —

그는 ‘푸른 기차’를 사랑한다.

- ① ‘그’와 ‘푸른 기차’를 동일시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 ② ‘그’가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 ③ ‘그’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함을 암시하기 위하여
- ④ ‘그’가 ‘푸른 기차’를 좋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 ⑤ ‘그’와 같은 현대인의 전도된 가치관을 부각하기 위하여